

지역 소식통

김제소방서, 봄철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대부분은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불량으로 나타나 농업기계 사용설명서 숙지, 작업전 안전 장비 착용, 기계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령일수록 농기계 정비와 추락사고의 경우 돌발 상황 대처 반응이 늦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으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 철저 △경사진 길 주행시 감속 및 주변 확인 철저 △야간 주행시 반사판 스티커 부착 및 방향 지시등 활용 △도로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농작물 등 과다 적재 금지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미니카레이싱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니카 레이싱 놀랩(Play La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미니카 레이싱 놀랩(Play Lap)은 삼레움, 이서면, 고산면을 시작으로 봉동읍, 용진읍, 소양면, 구이면, 상관면, 운주면, 경천면, 비봉면, 동상면, 화산면 등에서 하반기까지 진행된다.

미니카(mini 4wd)는 접착제가 필요 없이 손쉽게 조립할 수 있고, 작동 원리와 도구사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경기를 통해 협동심도 함양할 수 있다.

최근 이서면에서 열린 미니카 레이싱 놀랩에 참여한 성모 군은 "미니카 조립이 쉬워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레이싱 경기를 해보면서 박진감 넘치는 희열을 느꼈다"며 "대회가 열린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 알 빠르게 찾아가 유익한 체험활동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내년 국가예산 1조3115억원 발굴

유희태 완주군수 "새로운 완주 시대로 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

완주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1조3,115억원 규모를 발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소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었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정 발전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

업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사업비 1조 3,115억 원 규모의 77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사업의 논리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5년 신규발굴 주요사업으로는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400억 원) △차세대 탄소중립연료(E-fuel) 엔진성능평가센터 설립(190억 원) △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2억 원) △대아~용담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120억 원)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 원) 등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전복지지도 일제 출장을 계획해 실시하고, 이달부터는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통해 주요사업의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이 수용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도 중점사업 선정과 부처 단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는 국가예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군은 부처별 공모사업 초기 단계에 적극 대응해 자체 준비사업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모색해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정 방향과 맞는 공모사업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부의 건축·건설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새로운 완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12일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소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 2024년 북스타트 사업 운영

영·유아 대상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은 12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책꾸러미 배부 사업과 부모 특강 및 영·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책꾸러미 사업은 0세~7세(취학전 아동)를 대상으로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에코백 책 꾸러미를 배부해 어려서부터 책을 장난감처럼

읽어주고 함께 놀면서 책 읽는 문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오는 22일 10시 30분에 '책으로 크는 아이들의 저자 백화현 작가를 초청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월~6월 매주 수요일에는 생후 13개월~26개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웃고 즐기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단계별 소진시

까지 신청가능하며, 부모교육 특강 및 책놀이 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 방문 및 전화(☎540-4142)를 통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를 통해 어려서부터 가정 내 독서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책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스타트 관련 3종세트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gl.gimje.go.kr/)를 참조하거나 아동실(540-41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이동 세탁 본격 시작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해 4월 가수 현숙이 기증한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 3월부터 본격적인 이동세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는 12일 요천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가정

서 이불빨래가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상으로 주4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사업에는 세탁전담직원과 지난해 자원봉사대화를 수료한 봉사자 등 20여명이 스스로 자원해 빨래봉사에 참

여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난지역에도 투입돼 빨래봉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궁행원센터장은 "겨우내 사용한 이불 및 카페트등을 세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활동이 불편하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 DMO' 설치 지자체 선정

김제시,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1단계 선정... 국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11일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설치 심사에서 신규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난 2020년부터 지역내 주민, 사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내 관광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 관광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김제시는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1단계(1년차)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1·2년차 1억원, 3~5년차 1억5천만원 등 최대 국비 6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지역관광 추진조직 맞춤형 사업상담, 벤치마킹, 홍보마케팅 등도 지원 받는다.

시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고도화, 착한가격 정착제, 체류형 숙박공간 개선 등 민관협력형(α 민간주도형) 통합플랫폼 역할을 기대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DMO는 주민과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조직"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인프라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도 김제시 동호인리그'가 종목별 특성에 맞는 경기장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김제시, 2024 동호인리그 '8개월간의 대장정' 돌입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봄의 시작을 함께할 '2024년도 김제시 동호인리그'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주관하는 김제시 동호인리그는 10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야구, 족구, 축구, 테니스, 탁구, 당구, 볼링)이 종목별 특성에 맞는 경기장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클럽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0여명의 동호인이 증가한 총 3,100여명의 동호인들이 종목별 경기에 참여해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김제시체육회는 내다봤다.

10개 종목의 상위 클럽들은 11월 2

~ 3일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에 김제시를 대표로 출전하여 도내 최강 클럽팀을 가릴 예정이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동호인들 모두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며, "승패보단 부상 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도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에 김제시 동호인들은 10개 종목 20개 클럽 2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테니스에 지평선클럽이 1위, 배구(여자3부)에 K태종클럽과 탁구(남자부)에 조야탁구클럽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Advertisement for environmental campaign with text: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Image shows a green field with trees under a blue sky.